

電子盜聽을 둘러싼

조용한戰爭

롱·아일랜드의 글렌·코브시는 최근 이곳 교외에 있는 한 외교관저택이 電子스파이 활동의 센터였다는 보도에 따라 소련사람들을 해안과 테니스·코트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다.

워싱턴에서는 의회가 미국에서 스파이들을 내쫓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美下院의 존·레부티에 의원은 전자도청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외교관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최근 美上院의 대니얼·모이니 한 의원이 내놓은 법안과 비슷하다.

정부관리들에 의하면 시기는 무르익고 있으나 간첩에 대한 공격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가지 이유는 미행정부가 똑같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전자첩보행위를 금지시키면 미국에서 이른바 “외교”요원들의 집단출국사태를 빚어낼 것이다.

「워싱턴 지붕위를 한번 쳐다보시오. 합법적이 아닌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장거리통신업계의 한 당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도청자들의 소재는 알고 있다. 만약 스파이들을 지하로 잠적하게 만들면 감시할 수 없게 된다.

는 정교한 장비로 가득차 있지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적어도 15~17명의 기술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동북부회랑인뉴저지州, 뉴욕州, 코네티컷州, 롱·아일랜드州 등에서 오는 신호를 도청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통신전문가들은 전화는 1백마일 거리에서도 도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소련의 별장과 가까운 미국해군의 그로톤 잠수함기지는 그런 범위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전화가 이런 위협에 노출된 이유는 지난 30년간 초단파통신중계 시스템이 폭발적으로성장했기 때문이다. 초단파는 1951년 美大陸 횡단전화를 30마일 간격을 둔 중계탑을 이용해서 중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스템은 땅속에 묻은 와이어·케이블보다 훨씬 값이 덜 먹었다. 이리하여 1960년께 까지 벨시스템은 도시간의 접속선중 3분의 1 이상을 이 초단파중계로 대체했다.

오늘날 미국의 방대한 양의 장거리전화는 거의가 초단파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체인의 중계시스템 마다 약 2천통화를 제공한다.

초단파는 강력한 프레쉬라이트와 낮은데가 있어 고주파에너지의 집중 비임이 번쩍이면

이리하여 미국정부는 지난 5년간 추방대신 전자첩보활동에 대항하는 조용한 전쟁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은밀하게 전화중계국을 최신장치를 이용한 침략행위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써왔지만 사태는 해마다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글렌·코브市民들을 당초 놀라게 한것은 소련의 고위망명자가 지난 4월 이곳의 36에이커나 되는 킬레워드莊園이 UN주재 소련요원들의 휴양지만이 아니라 소련 전자첩보 활동의 중심지라고 폭로한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서방으로 망명한 최고위층의 소련관리인 A. 쉐브첸코는 TV인터뷰에서 이 49개의 방을 가진 맨션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 빌딩의 제일 높은 층은 전화대화를 모두 도청할 수 있

서 중계를 한다. 흔히 스파이는 신호를 잡기 위해 비밀의길에 따라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 에너지의 대부분은 뻑뻑한 비임속에 집결되어 중계하는 동안 거의 분산되는 일이 없다.

스파이에게는 초단파가 비공과 같은 것이다. 더우기 고성능의 안테나와 소음이 적은 증폭기를 가진 도청장치는 먼거리의 신호도 도청할 수 있다. 가장 극적인 예는 다년간 소련에서 초단파신호를 염탐한 미국 위성들이 미사일시험기간중 송신되는 극비자료까지 잡을 수 있었다. 라이오라이트로 알려진 이런 형의 위성은 지상 2만 3 천마일 상공의 궤도에서 염탐을 했던 것이다.

미국의 초단파선을 도청한다는 것은 2 가지를 제외하면 아직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첫째, 전화회사가 통화직전에 다이얼로 돌린 전화번호를 편리하게 부호로 바꿔 버린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식별하게 되면 초단파비임을 타고 있는 2 천통화중에서 마음대로 대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白驛館에 대한 장거리전화호출번호는 202-456-0000 따위다. 둘째로 고속컴퓨터로 탐색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스파이는 손을 놓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컴퓨터가 다이얼을 돌리는 돈을 훑어보고 관심있는 것이 나타나면 기록장치를 틀어준다.

1970 년대 초에는 소련이 美農務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전화통화를 도청하여 미국전문가들 보다도 미국곡물시

장에 관하여 더 아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과의 곡물거래에서 크게 덕을 보았다.

포드행정부는 처음 이 문제와 맞붙었다. 1977년 지미·카터대통령은 대통령지시 24호에 서명했다. 극비문서인 이 지시는 비밀자료와 대화의 송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商務省이 商品市場의 전망, 재정자료, 석유비축현황 등 예민한 미국정보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을 지시하고 있다. 1978년 특별사업실로 알려진 商務省의 反스파이조가 미국의 각기관에 대해 電子도둑을 막는 방법에 관해 자문하기 시작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정부의 전화대화는 지하케이블을 통하는 방법이지만 이선은 많지 않다. 따라서 카터의 계획은 주파수변환기를 이용하여 초단파를 타는 메시지들을 뒤섞는 E SV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그러나 스파이들을 우아하게 좌절시키는 방법은 초단파망을 침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종전에는 美연방 통신위원회가 요구하면 아무에게나 초단파 송신기의 주파와 출력을 할당했다. 그 목적은 이미 혼란상태에 빠진 루트와 주파를 피해서 업자들을 도와 새로운 초단파망을 설치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야심적인 스파이들에게 하나의 안내구실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은 업자들이 글로 된 신청서를 제출해도 거절당하기 일쑤가 되었다.

앞으로 전자첩보행위에는 가장 큰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호출의 행선지를 알리는 코오드를 제거하는 일이다. 전화업

계는 호출과 행선지의 코오드를 별도의 초단파로에 배정하고 있어 결국 스파이는 대화가 기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자면 수백건의 호출을 모니터해야 할 것 같다. 정부당국도 당분간은 도청으로부터 보호조치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호출은 도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부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문제는 많은 양의 기밀작업이 정부의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렌·코브의 도청소는 롱·아일랜드를 길가로 가로지르는 호출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이 섬의 모든 방위산업을 도청할 수 있다. 방위업체들은 전화로 기밀정보를 토의하는 것을 금하는 운영규칙이 있고 연방정부가 정규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구루만항공사대변인도 글렌·코브의 소련저택이 2 개의 그루만 시험시설의 정확히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단파도청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뭏든 도청과 맞서는 이 조용한 전쟁은 온갖 도움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요즘 새로 등장하고 있는문제는 통신위성의 확산이다. 통신위성은 2,000~3,000마일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수없이 많은 호출신호를 전파한다. 누구든지 접시모양의 안테나와 간단한 장비만 갖고 있으면 초단파 신호를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런데 소련은 쿠바에 있는 정교한 지상수신소에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호출을 도청하고 있는 것